



문 화공간 기린(대표 이현옥)은 전주객사 4길 젊은이의 거리, 패션의 거리 및 영화의 거리 사이에 자리한 서점, 유니클로, 전주 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가 위치한 기린오피스텔 3층에 380평 규모의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미술관, 전시장, 공방, 세미나실 등 복합문화의 장으로 오픈했다. 이번 문화공간 기린에서는 광정우작가를 초대하여 완전한 사랑전을 선보이고 있다.

완전한 사랑을 찾아 떠나다



문화공간 기린 내부

▶ 문화공간 기린, 어떤 곳인가?

작품 전시부터 세미나까지 '복합문화의 장'



문화공간 기린은 기린오피스텔 3층에 380평 규모의 문화공간을 조성해 미술관, 전시장, 공방, 세미나실 등 복합문화의 장이다. 앞으로 청년창업의 장과 카페도 꾸밀 예정이라고 한다. 이현옥 관장(사진)은 숙명여대 미술대학 응용미술과를 졸업하여 미술교사로 2년여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공예, 서예, 한국화, 도자 등 다양한 분야에 매진하여 개인전 및 그룹전에 참가한 순수한 예술인이다.

취약계층 배려 지역 커뮤니티와 함께 성장하는 공간 지향

기린은 성현이 이 세상에 나올 징조로 나타난다고 하는 상상의 집승이며 중국 전설에 등장한다. 특히 용·거북·봉황과 함께 사령(四靈)이라 하며 상서로운 동물로 인식되었다. '성현이 나면 기린이 나고 군자가 나면 봉이 난다.'는 말은 어진 임금이 나와 나라를 잘 다스리면 기린이나 봉황이 나타나는 것과 같은 상서로운 일이 있게 됨을 뜻한다.

문화공간 기린은 2017년 4월 27일에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와 동시에 개관하여 '100 films, 100 posters'를 5월 31일까지 전시하고 아수라 무비토크(배우 정우성, 정만식, 감독 김성식 출연)를 인터넷 방송으로 진행했다.

또한 기린오피스텔 소장작품전(기린미술관, 6.1-9.14), 시향을 담아내는 첫그릇작품전(추왕석, 9.15-9.28), 감성의 시선전(군산대학교, 11.10-11.19), 수목의 세계에서 놀다(여지희, 12.1-12.7), 은유, 예술로 피우다(기린미술관, 12.8-12.24)를 전시했다.

앞으로 문화공간 기린은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예술과 다층적인 문화 활동이 어우러지는 복합 공간을 추구하며 취약계층을 배려하고 지역 커뮤니티와 함께 성장하는 공간으로 대중의 공감과 참여를 이끄는 문화공간을 지향하고 있다.

문화공간 기린 미술관은 시각예술 전문기관으로 전북의 작가는 물론 호남지역과 국내외의 우수한 작가 작품을 기획 전시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개인전, 그룹전, 졸업전, 초대전 등을 개최하고 취약 계층의 예술인을 후원하여 전북 문화의 창달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현옥 관장은 "앞으로 성공적인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전 직원과 더불어 모범적인 기업으로 발전하여 더 많은 취약 계층에게 기회와 혜택을 주고 신규일자리 창출과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는 밑거름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광정우 작가는?

그는 남민 출신으로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를 졸업했다.

개인전 31회와 다수의 단체전을 가졌다. 서울에서 33년 동안 왕성한 활동을 해오다가, 올해 1월 고향에 돌아와 작업에 정진하고자 한다. 그는 대표작(부채 시리즈) 작업으로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사랑, 진리, 인간성이 회복되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며 예술의 사회적 기능에 대해 탐구하고 있다.

광정우 작가는 일상에서 만나는 낮고 친숙한 소재들로 작업한다. 일상의 삶이말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현재적 순간의 지점이다.

1960년대 미국 팝아트의 거장 앤디워홀은 대중을 위한 예술을 강조했고 대중들이 잘 알고 있는 친숙한 이미지를 사용하여 획일성, 편재성, 진부함을 드러내며 회화 개념을 전복하는 작업을 했다.

작가 또한 누구나 알고 있는 개념인 사랑을 하트라는 이미지에 담아 대중과 소통하기를 원한다.

앞으로 작가는 부채시리즈 연속작업을 계속하되 도자기, 말갈, 회백, 큐빅 등 다양한 매체로 설치작품이나 영상 등 미디어 작업을 시도하여 선보일 생각이다.

'하트'를 모티브로 한 작품들로 구성

광정우 초대전은 작가의 '부채시리즈' 중 하나로 사랑의 형태인 '하트'를 모티브로 한 작품들로 구성된다.

작가는 우리 삶에서 제자리에 있음으로써 적절히 기능해야 마땅한 것들 중 "있지 아니한 것"에 주목하여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한 것들의 회복'을 이야기한다.

2012년부터 작가는 부채의 대상으로 '진리'와 '인간성'과 '사랑'에 주목하여 '책'과 '웃'과 '하트'라는 대중적 이미지로 작업해왔다.

그 작업들 중 (완전한 사랑)은 신자유주의 경제논리에 따라 자본 자유화로 인해 심화되어가는 물질만능의 시대에 점차 사랑에 무감각해지고 상실해가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회복을 위해 하트를 새롭게 재해석하여 표현한 작품들이다.

'하트' 형상은 신체 기관인 심장과 마음, 그리고 사랑을 상징하는 친숙하고 대중적인 이미지다.

하트가 심장의 형상에서 출발하여 마음을 상징하고 사랑의 전형적인 기호가 되는 과정은 인간 인지영역이 확장되고 진화해왔음을 드러낸다. 인류의 역사에서 '하트'는 철학, 종교, 문화, 예술, 역사의 범주를 넘나들며 지속적으로 다루어지는 주요 소재였다.

작가노트 완전한 사랑은 세 가지 요소로 표현



광정우 작가

된다. 하트, 단추, 줄이 그것이다.

하트는 사랑의 형태이며 삶의 원형이다. 단추는 하나의 점을 나타내고 점은 선과 면을 이루는 최소 단위로 시작을 의미한다. 단추는 닫힘과 열림, 구속과 자유를 상징하며 세상을 여는 창이다. 마지막으로 줄은 사람과 사람, 진리와 사람

을 연결하는 관계와 생명을 상징한다. 우리는 하나의 줄로 연결된 인연이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는 존재이다. 삶의 최고의 덕목은 사랑이다. 사랑은 살아 숨 쉬는 생명과 같다.

이번에 전시된 작품은 180cmx180cm 크기의 대형작품 4점을 포함하여 17점이다. 주로 캔버스에 아크릴로 작업하였으며 단추, 선·끈, 도자기 파편 등을 직접 붙인 콜라주 작업을 병행했다.

'완전한 사랑이란 무엇일까?'에 관해 작가는 직관적인 붓 터치가 드러나는 회화와 간단한 콜라주 작업으로 내밀하게 그 속성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붉은 열정을 가진 사랑, 둘 사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사랑, 존재의 기쁨으로 가득한 선물 같은 사랑,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는 사랑, 감동의 사랑, 세상에서 받은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는 사랑을 만나보자.

완전한 사랑은 어쩌면 신기루 같은 것일지도 모르지만, 이번 전시를 통해 작가가 전하는 사랑을 느끼며,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삶의 길고 속에서 스스로에게 완전한 사랑은 어떤 것인지 발견하기를 기대한다. 또한 작가만의 독특한 시각적 메시지를 마음껏 누리는 감상의 장이 되기 바라며 전시에서 드리는 작가의 완전한 사랑을 마음 가득 담아가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해은 기자

전시작품 미리보기



'사랑은 바다다'

세상의 모든 물이 궁극에 이르는 지점이 바다다. 바다는 가장 낮은 곳에 머무르면서 거대한 힘을 가진 저장소가 된다. 이 작품은 격조 있고 균형 잡힌 선의 하트 안에 푸른 바다, 파도, 포말 등이 솟구치는 이미지다.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는 겸손과 헌신이야말로 사랑의 정점이다.



'사랑은 둘 사이의 거리다'

달에서 영감을 얻은 작업이다. 달과 지구 사이에는 일정한 거리와 힘이 있다. 아름다운 초록별 지구에서 인간의 삶이 지속되는 데 달은 물론 태양과의 거리 또한 핵심이다. 조밀하기보다 성긴 상태로 식재된 나무들이 울창한 숲으로 자라날 수 있듯이 온전한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거리를 둔 지점에서 지켜보고 기다려주는 배려가 필요하다. 달 표면을 연상시키는 보랏빛 우물투물한 질감처리가 신비롭고 우아한 느낌을 준다.



'사랑은 심장이다'

하트는 가장 대표적인 사랑의 상징이다. 사랑의 열정을 표현하는 붉은 혈액이 날렵하고 예리한 윤곽의 하트에 담겨있다. 특별히 육체적 긴장이 유발되는 상황에서서는 혈액이 심장과 근육으로 공급되는 신체적 현상을 떠올리게 하는 작품이다. 이런 방식으로 심장은 폐와 뇌에 직결되어 삶과 죽음을 관장하는 핵심 기관이 된다. 고대 그리스에서 프시케(psyche, 영혼의 화신)는 마음·심장과 동일한 것으로 여겨져 인간에게 개인적인 또는 주관적인 정체성이나 고결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사랑은 치유다'

선명한 프랑스 삼색기 위에 숨은 듯 사라져가는 하트형태가 전시장에 자리한다. 이는 2015년 파리 시내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테러사건을 담았다. 129명이 사망하고 352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이 테러는 보복성이 아니라 무고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전 세계적인 분노를 일으켰다. 작가는 이로 인해 희생된 시민들의 상처와 고통을 애도하며 치유와 회복을 갈망하는 의지를 작품으로 드러냈다. 완전한 사랑으로 이 지구상에 평화가 가득하기를.